

4. Evaluation – Write two peer interface evaluations

A. 지우성 학우

⑤ 편집 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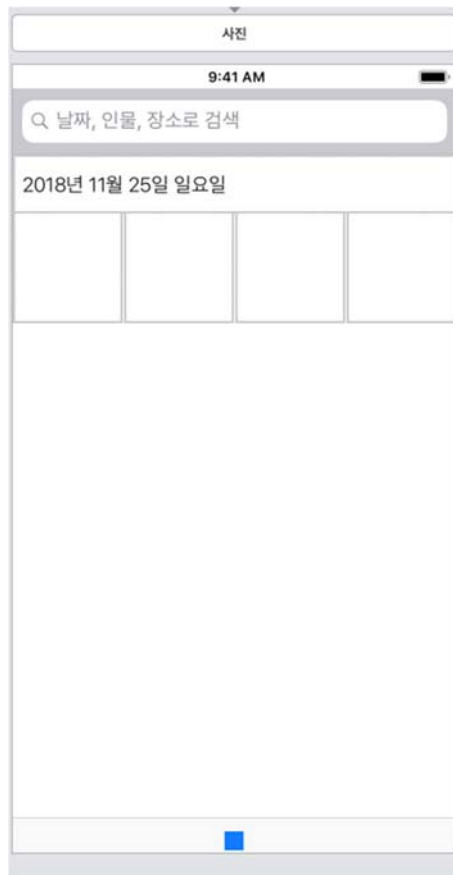
출처: <https://github.com/jiws829/hci/blob/master/hw4-2.pdf>

해당 Graphical Interface를 보면 기능적으로부터 살펴보면 갖춰야 할 사항들은 다 갖춰 있고 사용자의 니즈를 잘 만족하는 것 같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디자인했기 때문에 디자인도 깔끔하고 심플하게 만들었다. 특히 Short Term memory 가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Chunk의 개수를 의미하는 Magic Number으로 한번에 5x2으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default 설정한 것이 좋다.

비록 Accessibility Guidelines를 따라서 ‘?’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지원하지만, 정확히 어떠한 설명을 하는지가 애매모호하다. 해당 버튼 위치가 우측 상단에 창 닫기, 이전 크기로 복원 등 과 같이 창에 대한 버튼과 같이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창에 관련한 질문인지, 전체적인 기능적인 설명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페이지마다 각각 설명이 다르게 나올지도 잘 모르겠기에 세부적인 기능에 사용자가 마우스를 갖다 올려 놓으면 추가적인 설명이 마우스 위치에 작게 알려주는 방식이 더 좋을 듯 하다.

마지막으로는 편집에서 그룹 생성 기능을 이용하려면 여러 사진을 선택 한 다음에 그룹 생성 버튼으로 그룹으로 묶는 것인데 스티커 붙이기, 그림 붙이기 등 사진을 편집하는 기능을 선택할 때 보여주는 UI를 동일하게 한 부분이 아쉽다. 선택 시에 나타나는 메시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택이 가능 할 때는 사용자가 확실히 알 수 있고 주변 테마 색상과도 맞게 검정색 폰트를 Bold 형식으로 강조하고, 특정 상황에서 선택이 불가능 기능 같은 경우에는 반투명 혹은 회색으로 글씨체를 다르게 하면서 버튼을 선택 못 하게 하는 식으로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

B. 유준상 학우



출처: <https://wnstkdyy.github.io/2018/11/26/2018-2-HCI-Assignment-4-2/>

디자인하면서 고려한 요구사항은 매우 간단하여 크게는 쉽게 원하는 사진을 시간 혹은 맥락으로 분류하여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폰트크기, 색감, 레이아웃 등이 조화가 잘 어울리게 디자인했다.

아이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사진 어플리케이션에 다수의 사용자가 익숙한 만큼 이러한 디자인과 비슷하게 했기에 사용자는 인터페이스에 보다 친숙하고 익숙하다. 다만, 분류 기준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지 못 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 자동으로 분류가 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각 사진마다 선택하여 tag하여 tag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 보다 자유도가 높고 사용자의 보다 편리하게 분류할 뿐만이 아니라 검색 및 관리할 수도 있어서 편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AI를 이용해서 분류한다고 하기에 사용자에게 AI가 어떤 방식으로 분류했는지 기준과 함께 분류 완료 확인 알림을 주면 좋겠다. 기술적인 설명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사진이 많으면 초기에 분류하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기에 사용자에게 큰 맥락상의 분류 주제와 진행 및 완료여부를 같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